***Session 3 Confidence in Love: Overcoming Shame (Jn. 14:2-3)* 제 3 강 사랑으로 누리는 확신: 수치심을 이기는 힘 (요 14:2-3)**

1. Review: Jesus’ command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our heart   
   복습: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1.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let trouble dominate their hearts (Jn. 14:1). There are human dynamics involved as indicated by His command to “let not…” He responds by giving us peace.   
      We will focus on walking in confidence in God’s love as the way not to be troubled by sham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다(요 14:1). 이 명령은 “…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중요한 인간의 역동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확신 가운데 행하며 수치심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38Jesus answered him [Peter], “…the rooster shall not crow till you have denied Me three times.”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a fact], believe also in Me [a command].”   
27My peace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Jn. 13:38-14:1, 27)   
38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사실] 또 나를 믿으라 [명령] … 27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 (요 13:38-14:1, 27)

* 1. John 14:1 is not a salvation appeal to become born again. Many in Israel, including their leaders believed in the *God of Moses* without having seen His form (Jn. 5:37). They had *faith in an invisible God.* Jesus called them to believe also in Him *in this way—*after He died andwas no longer visible.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모세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었다 (요 5:37).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자신이 죽은 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었다.
  2. The apostles’ crisis of stumbling (denying or abandoning Jesus) was a painful, personal failure (13:38; 16:33). To alert them to pray, Jesus told them that they would all abandon Him (Mt. 26:31).   
     사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부인했던 것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였다(13:38; 16:33).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6:31).

38…the rooster shall not crow till you [Peter] have denied Me three times. (Jn. 13:38)  
38… 닭 울기 전에 네[베드로]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13:38)

32…the hour…has now come, that you will be scattered…and will leave Me alone. (Jn. 16:32)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 (요 16:32)

30…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31Jesus said, “All of you will be made to stumble because of Me this night…34[Peter] will deny Me three times.” (Mt. 26:30-34)   
30…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31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34… 네[베드로]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 26:30-34)

1. Assurance of being enjoyed by God: power over shame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존재라는 확신: 수치심을 이기는 힘
   1. God created the human spirit with the longing for the assurance that we are enjoyed by God. Our assurance that God enjoys us grows as we gain understanding of His affections for us.   
      하나님은 인간을 갈망을 가진 영혼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존재라는 확신에 대한 갈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할 때 커진다.
   2. We cannot thrive spiritually without confidence in God’s affection towards us, even in our weakness. The fear of rejection with shame is perhaps the most common destructive emotion that we feel. Confidence strengthens the human heart, while shame cripples it. Confidence empowers us *to run to God* instead of *running from God* in times when we discover our weakness and sinfulness.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 없이는 영적으로 번성할/성장할 수 없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은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가장 흔한 파괴적인 감정일 것이다. 확신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반면, 수치심은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킨다. 확신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갈** 힘을 준다.
   3. We must prioritize cultivating this confidence and helping others also to walk in it and not use shame and accusation to motive people. Shame separates people relationally and cripples them emotionally. Confidence emboldens hearts and causes people to run *to* and *not* from one another.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기르는 것을 우선시해서 다른 이들도 그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수치심이나 비난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치심은 사람들을 관계적으로 분리시키고 감정적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확신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게 아니라 서로**에게로** 달려가게 한다.
   4. What do we do when our heart is troubled with shame due to our failure or fear or anxiety?   
      We must realign our mind to agree with what God said; His peace will guard our hearts.   
      We determine to increase our conversation with Him by speaking truth with thanksgiving.   
      우리는 실패나 두려움, 불안으로 인해 마음이 수치심으로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도록 생각을 재정렬해야 한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더 많은 대화하는 것을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6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7and the peace of God…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Phil. 4:6-7)  
6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7그리하면 … 하나님의 평강이 …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2…be transformed [emotionally]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om. 12:2)   
2…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를 받아 … (롬12:2)

1. The Father’s House—our ultimate destiny (Jn. 14:2-3)  
   아버지의 집—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요 14:2-3)
   1. Jesus promised to return for us and to be with us forever in the Father’s house (14:2-3). I encourage believers to say, “Jesus, thank You for glorious reality of the Father’s house, for preparing a way   
      for me to live in it with You forever, and for coming again for me! Show me more.”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며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4:2-3). 나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격려한다. “예수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실제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다시 오신다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보여주세요."

2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2-3)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3…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 1. Jesus began elaborating on what it means to overcome a troubled heart by emphasizing that He would return to take to us the Father’s house (New Jerusalem) as a foundational truth on which to build our lives (14:3, 28). This promise of preparing a place for them to live in the Father’s house gave them a whole new perspective for their life, especially in overcoming despair. The New Jerusalem will initially descend to the earth at the time that Jesus returns (Rev. 3:12; 21:10)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집(새 예루살렘)이라는 기초 진리 위에 세워야 함을 알게 하셨다(14:3, 28).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 약속은 특히 그들이 절망을 극복해는데 있어 그들의 삶을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으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계 3:12; 21:10)
  2. ***I go to prepare a place***: Jesus went to the cross to prepare a place for us. That “place” was prepared when He died to atone for our sin. He had to suffer God’s wrath in our place to remove every obstacle to our acceptance by the Father. We must not let shame trouble our heart. By His death,   
     He qualified all believers to join Him there now and forever. Jesus declared, “*It is finished!”***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십자가에 가셨다. 그 “장소”는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실 때 준비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대신 진노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 우리는 수치심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

21For He [the Father] made Him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21)   
21하나님[아버지]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예수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 + 1. He surprised them by making one of the most monumental statements of His earthly ministry saying,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He had a tone of certainty and finality knowing “it would be finished” in the next 24 hours. Jesus went to prepare a place for us ultimately to live in a face-to-face relationship with God in His house. They might have assumed He was going somewhere in Israel to prepare a house for His father—another temple? (Mt 24:2; Jn. 2:16).  
       그분은 지상 사역의 가장 기념비적인 말씀 중 하나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다. 예수님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다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완결의 어조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로 살도록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들은 그분이 아버지를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어딘가로 가신다고 추측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성전을 지으러 가시나 생각했다(마 24:2; 요 2:16).
    2. Jesus had told them on several occasions that He was going to Jerusalem to die but had not yet told them ***why*** He would die—it was to prepare a place for them in the Father’s house.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직 **왜** 죽으시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다.
  1. We have confidence because of what He did (14:2), how He feels (14:3), and who He is (14:4-10).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14:2), 그분의 감정(14:3), 그분이 어떤 분인지(14:4-10)를 생각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
     1. ***What He did (14:2)***: He is the architect of the New Jerusalem (Heb 11:10) which is the Father’s house, and He went to the cross to make a way for us to live there. He prepared the way for us to enjoy the Father’s house *spiritually* in this age and *physically* when He returns.   
        **예수님의 행하신 일(14:2):**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 분이시며(히 11:10),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재림 때 **육신으로도** 누리도록 길을 예비하셨다.

3…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Jesus]…10[Abraham]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Heb. 11:3, 10; NAS)   
3…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예수님]으로 지어진 줄을…10이는 그가[아브라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 11:3, 10)

* + 1. ***How He feels (14:3)***: He desires that we be with Him. Our confidence in God’s affection grows as we understand *what* Jesus did on the cross and *why* He did it. We must thank Jesus often for this and ask Him to show us more! Speak the promises of 14:2-3 to each other often.   
       **예수님의 감정 (14:3**):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때 자라간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 자주 감사해야 하고, 더 많이 보여주시길 간구해야 한다! 서로에게 요14:2-3의 약속들을 계속 선포하라.

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3…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 + 1. ***Who He is (14:4-10)***: He is the only way to the Father and is one with the Father (Jn. 10:30).   
       **예수님의 존재(14:4-10):**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와 하나이시다(요 10:30).
  1. The apostles had no idea of the magnitude of what Jesus was saying to them. He was going to die to accomplish eternal salvation for anyone who would call on His name.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glory of this. Forever we will magnify Jesus for preparing that way for us through the cross.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혀 몰랐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죽으실 것이었다. 이것의 영광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8…the twenty-four elders…9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for You were slain, and have redeemed us to God by Your blood out of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10and have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our God; 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8-10)   
8… 이십사 장로들이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8-10)

1. Jesus prepared the way for His people to be with Him (Jn. 14:3)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할 길을 예비하셨다 (요14:3)
   1. Jesus will come again. In 14:3, He was referring primarily to His second coming (Acts 1:11), pointing back tothe last message that He gave them on Tuesday (see Matthew 24:29-31).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14장 3절에서 그분은 주로 자신의 재림(행 1:11)에 대해 말씀하시며 화요일에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셨다(마24:29-31 참조).

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 1. ***I will come again***: In John 13-17, Jesus applied His promise to “come to them” in three ways.   
     First, in speaking of His second coming (14:3), next by dwelling in them through the Spirit who was given to them at Pentecost (14:23, 26), and finally in appearing to them soon after His resurrection (16:16-17). Many see a combination of these, but the primary meaning here is His second coming.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오리라”는 약속을 세 가지로 적용하셨다. 첫째, 그분의 재림 때 오실 것이고 (14:3), 다음으로, 오순절에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오실 것이며 (14:23, 26),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직후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16: 6-17) 이라고 하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주된 의미는 재림이다.
  2. ***I will receive you to Myself***: He will come back to personally bring us to the Father’s house—this highlights how dear we are to Him. Jesus is deeply desirous for us to be Him forever (Jn. 17:24).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요 17:24).

24Father, I desire that they…may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Jn. 17:24)   
24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망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요 17:24)

10I am my Beloved’s, and His desire is toward me. (Song 7:10)   
10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그의 갈망이 나를 향하는 구나;   
뉴 킹 제임스 버전] (아 7:10)

* 1.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esus paid the full price to secure our nearness to Him. Jesus died so we could be with Him and not stand at a distance because of accusation and shame.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고 참소와 수치로 거리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19…having boldness [confidence] to enter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20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consecrated…22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confidence] of faith…23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Heb. 10:19-23)   
19… 성소에 들어갈 담력[자신감]을 얻었나니20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22…참 마음과 온전한[확고한,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23…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10:19-23)

* 1. We can engage in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in this age.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as Jesus described in John 14:7-27 and applied in John 15.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의 역동성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27절에서 설명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적용하신 관계다.

23…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Jn. 14: 23)  
23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 1. Satan’s great weapon against God’s people is his ***2-fold accusation*** against us to convince us to accuse ourselves first, and then accuse one another. Only by overcoming this can God’s people walk with confidence before God and mature love for each one (Jn. 17:23).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이중 참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참소하고,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참소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참소를 이겨내야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서로를 향해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요 17:23).

10…the accuser of our brethren, who accused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Rev. 12:10)   
10…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 (계 12:10)

* 1. The “God narrative” of our life is a view of our life through the lens of His marvelous kindness now and is His big-picture storyline for us. The “accusation narrative” is a view of our life through the lens of our deficiencies and failures—it is focused on our failures, deficiencies, and what we lack.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내러티브”는 그분의 놀랍도록 친절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금 우리 삶을 보는 관점이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큰 그림이다. "참소하는 내러티브"는 우리 삶을 자신의 결핍과 실패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관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 결핍, 부족에 초점을 맞춘다.

1. how Jesus responded to the disciples in their failure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1. On the night that Peter and all the others stumbled (Mt. 26:31), Jesus spoke of loving them (15:9; 17:23), called them His friends (15:15), prayed for them, and spoke words of life over them (15:8). Each of these truths is a like holy missile that destroys Satan's lies and accusations against us.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실족하던 밤(마 26:31),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15:9, 17:23), 그들을 친구라 부르셨으며(15:15),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마 26:31),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15:8). 이 각각의 진리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거짓말과 참소들을 파괴하는 거룩한 미사일과 같다.

8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Jn. 15:8)   
8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 (요 15:8)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Jn. 15:9)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 (요15:9)

1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Jn. 15:11)   
1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 (요15:11)

12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n. 15:12)  
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12)

15…I have called you friends… (Jn. 15:15)   
15…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15:15)

* 1. Jesus prayed for and spoke words of life over Peter, assuring him that he would recover and be used by God. Jesus later confirmed Peter’s calling by a miraculous catch of 153 fish (Jn. 21:11, 17).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주시며,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을 확신시켜주셨다. 후에 예수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아 베드로의 부르심을 확증하셨다(요 21:11, 17).

31The Lord said, “Simon…Satan has asked for you…32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and when you have returned to Me, strengthen your brethren.” (Lk. 22:31-32)  
31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32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22:31-32)

11Simon Peter…dragged the net to land, full of large fish, one hundred and fifty-three…  
14This is now the third time Jesus showed Himself to His disciples…15Jesus said to Simon Peter, “…do you love Me?…feed My lambs.” 16He said…a second time, “Simon…do you love Me?...tend My sheep.” 17He said to him the third time…“Feed My sheep.” (Jn. 21:11-17)   
11시몬 베드로가 …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14이것은 예수께서 …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15…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느냐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16또 두번째 가라사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내 양을 치라 하시고17세번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1-17)

* 1. Jesus declared truths over them knowing that they would all stumble that night. Jesus spoke to   
     “who they were” in God’s sight—those who were loved and fruitful *before* they stumbled. It is easier to believe these truths before stumbling and more difficult to receive them after stumbling.   
     예수님은 그들이 그날 밤 모두 실족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곧 그들이 사랑받고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진리는 실족하기 전에 믿는 것이 더 쉽지만 실족 후에는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
  2. Jesus taught us to go privately to a brother who stumbles to seek to win him (Mt. 18:15). Speak to him with redemptive goals and refuse to talk about him to others before going privately to him.   
     This is how Jesus approaches each of us when we sin—He speaks to us privately to win us.   
     예수님은 실족하는 형제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가르치셨다(마 18:15).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구원의 목적을 갖고 해야 하며,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른 이들에게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15…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tell him his fault between you and him alone.   
If he hears you, you have gained [won; NAS, NIV] your brother. 16But if he will not hear, take with you one or two more…17And if he refuses to hear them, tell it to the church. (Mt. 18:15-17)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6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17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 (마 18:15-17)

* 1. We must see the difference between rebellion and spiritual immaturity in those who sincerely seek to obey God. God is angry at rebellion but feels affection for immature believers who love Him.   
     It is not difficult to believe that God enjoys us after we are spiritually mature. Yet, God enjoys us even now, in our spiritual immaturity! Jesus described the Father rejoicing over repentant prodigals.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볼 때 반역과 영적 미성숙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반역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애정을 느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셨다.

20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23“Bring the fatted calf here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be merry; 24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Lk. 15:20-23)   
20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23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24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 (눅15:20-24)

* 1. Even when Jesus corrects us, He does not reject us. He corrects us because He desires us so greatly.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고쳐 주실 때 조차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다.

12 For 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ov. 3:12)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3:12)